



미 증시, 고용 부진, 연준 조기 긴축 우려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4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7 월 ISM 서비스업 PMI 호조, 대형 테크주 강세에도, 7 월 ADP 민간고용 쇼크,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이 위험선호심리를 위축시킴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다우 -0.9%, S&P500 -0.5%,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0.2%), 기술(+0.2%)을 제외한 에너지(-2.9%), 산업재(-1.4%), 필수소비재(-1.3%), 소재(-1.0%) 등 전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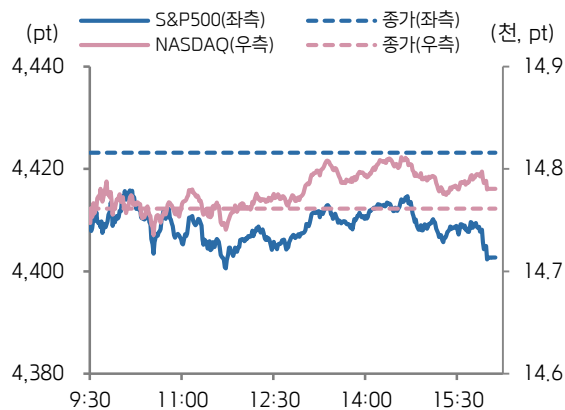
미국의 7 월 ADP 민간부문 신규고용은 33.0 만건으로 전월(68.0 만건) 및 예상치(69.5 만건)를 대폭 하회. 서비스업 고용이(62.4 만건→31.8 만건)으로 급감했다는 점이 전반적인 고용 부진을 견인. 7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64.1 로 전월(60.1) 및 예상치(64.0)를 모두 상회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물류 등 공급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국 서비스업황은 수요 호조에 힘입어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현재로서는 금리인상까지 같길이 멀지만, 연준의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2022 년말까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공급 문제에서 기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의 위험은 위쪽에 있다고 강조.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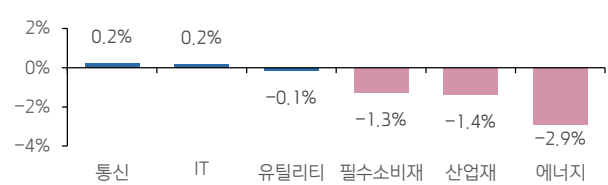
델타변이로 인한 경기 둔화 불안감이 상존한 가운데, ADP 민간 고용 쇼크로 6 일(금) 비농업부문 고용(예상 75 만건)도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 물론 민간 기관에서 집계하는 ADP 민간고용은 정부에서 집계하는 비농업부문 고용을 예측해주는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으나, 팬데믹 이후에 ADP 의 예측력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일례로, 4 월 ADP 고용(72 만, 예상 80 만)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비농업부문 고용(26 만, 예상 98 만)은 쇼크를 기록하기도함. 5 월의 경우 ADP 고용(98 만, 예상 65 만)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비농업부문 고용(56 만, 예상 65 만)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던 사례들이 최근 자주 출현했음을 감안 시, 6 일(금) 비농업부문 고용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지양할 필요.

S&P500&NASDAQ 일종 차트(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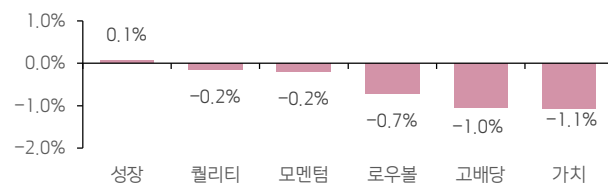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변화 없었음.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5.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매수강도 둔화 가능성 2. 선거레일 급등했던 컨택트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3. 장중 중국 정부의 추가 규제 등장 여부에 따른 중국 증시 변화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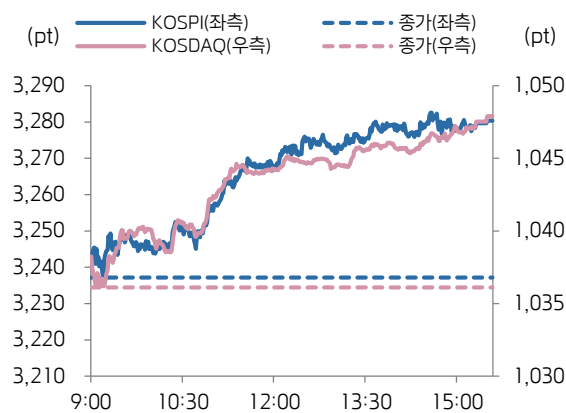
4 일(수) 코스피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서프라이즈에 따른 중화권 증시 반등, 반도체 등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전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3,280 선에 안착하는 강세로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1.1%).

업종별로는 운수창고(+3.5%), 기계(+2.1%), 섬유 의복(+2.0%), 은행(+1.9%) 등 전업종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74 억원, 8,890 억원 순매수, 개인이 1 조 7,765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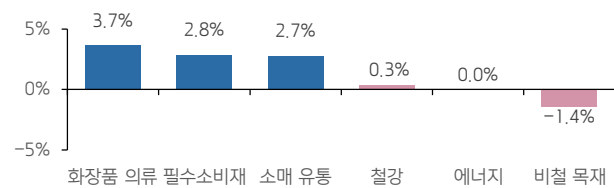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고용 둔화 VS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 미국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선거레일 미국 증시에서 AMD(+5.5), 엔비디아(+2.3%) 등 대형 테크주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았음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업종간 차별화된 수급 여건 및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연초 이후 지난 7 월까지 24 조원 넘게 공격적인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포지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비워뒀던 반도체, 자동차 한국증시 본격적 순매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추후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작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선거레일 미 증시의 부진한 흐름을 감안 시, 금일에는 매수 강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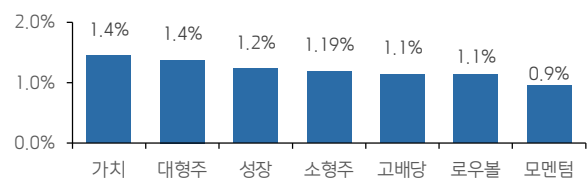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